

##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, 신속 지원

- 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는 6월 11일(화)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‘북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’을 보고한다.
- 현재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이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.
- 이에 정부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법령 개정 전이라도 해당 지자체가 피해주민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.
- 피해가 발생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는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.
-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오물풍선 살포로 인해 차량유리 파손 등 8건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, 피해규모는 향후 신고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.

담당 부서	비상대비정책국 민방위과	책임자	과 장	장규식 (044-205-4360)
		담당자	서기관	전병훈 (044-205-4366)